Vol. 86 | 2006. 2. 23.

CHAIRPERSON NOTE

경제 이슈
- 위안화 추가 절상에 대한 미국의 정치적 압력 증대
- 대형 투자은행 육성을 위한 '자본시장 통합법' 추진

경영 노트
- 구글(Google)의 마이크로소프트(MS) 깨뜨리기?

사회 트렌드
- 신(新) 나리타 이혼
- 부모 자격증

저널 브리프
- 우려되는 한국의 對美 수출 경쟁력

洗心錄
- 블링크(blink)

現代經濟硏究院
HYUNDAI RESEARCH INSTITUTE

□ 위안화 추가 절상에 대한 미국의 정치적 압력 증대

■ **후진타오 중국 주석의 4월 訪美를 앞두고 미국 측의 위안화 절상에 대한 정치적 압력이 지속됨**

- 중국 정부는 2005년 7월 달러당 8.21위안의 페그제(고정환율제)를 폐지하고, 시중은행들의 시장 환율로 평균 환율을 구하는 통화 바스켓 제도와 일일 변동폭 0.3%의 부분 변동 환율 시스템을 도입함
- 美 정부는 위안화 환율 변동 폭이 협소하기 때문에 무역 역조 개선 효과가 미약할 것으로 예상하고,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여 중국 정부의 환율 변동 폭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음

■ **중국 정부는 현행 환율 제도를 고수하겠다는 입장이나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불공정 교역국)될 경우, 주된 성장 동력인 수출 부문의 타격이 예상되기 때문에 변동폭을 확대(절상) 시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음**

□ 대형 투자은행 육성을 위한 '자본시장 통합법' 추진

■ **정부는 대형 투자은행 육성을 골자로 하는 '금융투자업 및 자본시장 관련 법률'(일명 '자본시장 통합법')을 추진 중**

- 현재 우리나라는 금융업간 엄격한 겸업화 금지로 인해 대형화된 투자은행 활성화가 미흡하여 대규모 M&A 등 대규모 거래(deal)에 대해서는 외국계가 대부분 주간사 역할을 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정부는 빠르면 2008년부터 그동안 증권사·투신사·자산운용사·선물사 등 자본시장 관련 금융기관의 전통적인 구분과 장벽을 제거하는 대신 매매업, 중개업 등 수행 기능에 따라 6개 업종으로 나누고 개별 업종이 상호 겸영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임

■ **그러나 정부의 의도대로 외국계 글로벌 투자은행과의 경쟁할 수 있는 대형 투자은행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대형화를 통한 국내 증권 산업의 경쟁력 확보, 위험자산 취급 증대에 따른 리스크 관리 능력 제고, 전문 금융인력 확충 등의 선결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시급함**

□ 구글(Google)의 마이크로소프트(MS) 깨뜨리기?

■ **MS가 '최고의 직장'에서 '골치아픈 관료조직'으로 바뀌고 있음**

- 과거 MS는 여러 부서에서 동일 기술의 경쟁 개발을 유도함으로써 가장 독창적이고 뛰어난 기술을 발굴해내는 운영 방법으로 최고의 직장, 첨단 벤처 조직의 명성을 가지고 있었음
- 하지만 규모가 커짐에 따라 MS가 거대한 관료조직으로 바뀌고 하향전달식 작업 방식이 많아지면서 '최고'의 이미지가 퇴색되고 있음
- 또한 부서간 협력이 제대로 되지 않고, 의사결정의 비효율성으로 제품 출시가 늦어지면서 경쟁자들에게 시장을 빼앗기고 있음

■ **상대적으로 유연한 네트워크 조직으로 구글의 매력도는 높아지고 있음**

- 구글은 정규직 이외에 300여 명의 프리랜서들을 활용해 소프트웨어 인재들의 네트워크를 가동하는 등 조직의 유연성을 높이고 있음
- 여기에 MS의 카이푸 리 전 부사장을 비롯하여 MS에서 손꼽히는 엔지니어들을 유치하여 '인재 블랙홀'이라 불리우고 있음
- 이밖에도 현장 의견을 존중하는 상향식 운영방식도 구글이 MS에 위협적인 이유가 되고 있음

■ **또한 사업영역에서도 구글의 약진이 계속되고 있음**

- 이미 PC내 정보를 웹상에서 검색할 수 있는 프로그램, 무료 이메일 서비스, 그리고 유료 검색엔진 등에서 구글이 MS를 앞서고 있음
- 또한 구글은 선 마이크로시스템즈와 함께 MS의 주력 제품인 워드나 엑셀 프로그램의 대안이 될 수 있는 제품 개발을 시작하였음
- 조직과 인재 관리의 실패는 몇 년째 MS 주가를 제자리에 잡아두고 있으며, 반면 구글의 시가총액은 인텔, IBM, 시스코에 이어 5위에 랭크되는 등 급격한 가치 상승을 보이고 있음

■ **MS의 위축과 구글의 성공에 나타난 경영 원칙은 '기본에 충실'함임**

- MS는 경영의 기본인 사람(Human), 일(Job), 그리고 사람과 일의 조화(Organization)에 대한 중요성을 다소 잊어버리고 있는 듯함
- 반면 구글의 성공은 "최고에 만족하지 말라"는 모토로 항상 기대를 능가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임

□ 신(新) 나리타 이혼

■ **'신 나리타 이혼'에 퇴직을 앞둔 일본 남성들이 전전긍긍하고 있다 함**

- 한때 부부가 신혼여행에서 돌아오자마자 이혼하는 사례가 많다고 해서 나리타(成田) 공항에 빗대 '나리타 이혼'이란 말이 유행한 바 있음
- 요즘엔 정년 퇴직한 부부가 해외여행을 떠났다가 귀국하자마자 이혼하는 경우가 늘어 '新나리타 이혼'이란 단어가 일본을 강타하고 있음
- 실제로 일본 후생노동성 통계에 의하면 결혼 20년 이상된 부부 가운데 약 4만 2,000쌍이 이혼, 85년 대비 두 배가량 늘어났고, 결혼 30년 이상된 부부의 이혼은 4배 가까이 급증

■ **일본에서 황혼 이혼이 늘고 있는 원인으로는 '대화 부족'이라고 함**

- 남편의 경우 퇴직 후 갑자기 할 일이 사라지면서 아내에게 기대려고 하는데, 여성 입장에서는 집안에만 틀어박혀 지낼 남편에 대한 부담감, 즉 '부재택(夫在宅) 스트레스 증후군'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는 것임
- 그런 과정에서 부부가 남편의 정년퇴직을 기념해 여행을 떠났다가 사소한 일로 다투거나 상대의 몰랐던 흠까지 눈에 띄면서 갈등하다가 결국 이혼에 이르게 된다는 것임
- 전업주부인 경우, 남편의 노령후생연금도 절반을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남편의 정년퇴직까지 이혼을 뒤로 미루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음

□ 부모 자격증

■ **자동차를 운전하려면 면허가 필요하듯 부모가 되기 위해서도 국가가 인정하는 부모 자격증(National Parent Permits)이 생겨날 수도 있다는 것임**

- 건강하고 생산적인 아이를 양육할 수 있도록 부모들을 준비시키고 교육키려는 운동이 생겨날 것이고, 이러한 운동을 주도하는 비영리단체들이 부모가 되려는 사람들에게 부모 교육 코스를 수강하고 국가에서 인증하는 부모 자격증을 따기 위한 시험을 치르도록 요구할 것임
- 더 나아가 프록터 앤 갬블, 올스테이트(보험회사), 포드 등 많은 제조 및 서비스 업체들은 부모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에게 할인을 해주고 특별한 혜택을 줄 수도 있을 것임

□ 우려되는 한국의 對美 수출 경쟁력*

■ **(미국, 무역적자 최고치 갱신) 미국의 무역적자 규모는 2004년 6,176억 달러에서 2005년 7,258억 달러로 전년 대비 17.5% 증가함**

- **(주요 교역 상대국 무역적자 최고치 기록)** 2005년 미국은 중국, 일본, EU, OPEC 등 주요 교역 상대국을 대상으로도 최고치를 기록함
  - **對中 무역적자 급증**: 미국의 對中 무역적자 규모는 2005년에 2004년 1,619억 달러에서 24.5% 증가한 2,016억 달러였으며, 특히 섬유 쿼터제 철폐로 섬유 수입 비중이 42.6%나 증가함
  - **기타**: 중국을 제외한 미국의 2005년 주요 교역 상대국 무역적자 규모는 일본 827억 달러, EU 1,224억 달러, OPEC 927억 달러, 캐나다 756억 달러, 멕시코 501억 달러 등으로 모두 사상 최고치임

- **(무역적자 급증 원인)** 2005년 미국의 무역적자 원인은 국제 유가 급등에 따른 석유 수입액 급증, 자동차나 전자제품 등 각종 소비재 수입 대폭 증가, 중국으로부터의 수입 급증 때문임

- **(미국의 딜레마)** 최근 미국 수출업체들의 실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중국으로부터의 수입 급증에 따른 무역적자 규모 축소를 위해 美 행정부와 의회는 중국의 환율정책에 압력을 가하는 등 노력하고 있으나 중국과의 무역 불균형 문제 해소에는 뚜렷한 성과가 없었음

■ **(우려되는 한국의 對美 수출 경쟁력) 미국의 주요 교역 대상국들이 미국과의 교역에서 큰 폭의 흑자를 내고 있는 반면 한국은 오히려 흑자폭이 감소하고 있음**

- **(對美 무역흑자 폭 감소)** 2005년 한국의 對美 수출은 462억 달러에서 438억 달러로 감소한 반면 수입은 264억 달러에서 277억 달러로 증가하여 對美 흑자폭이 감소하였음
  - **對美 수출 경쟁력에 대한 우려 고조**: 이에 따라 세계 최대 규모인 미국 시장에서 한국 상품의 경쟁력이 다른 국가들에게 밀리고 있다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음

---

* 이 글은 『한경 비즈니스』(2005.02.20)에 실린 글을 요약, 정리한 것임.

□ 블링크(blink)

순간의 선택이 장고 끝의 선택보다 더 나을 수 있다. 한눈에 내린 결정이 고심 끝에 내린 결정보다 더 탁월할 수 있다. <블링크(blink)>의 저자 말콤 글래드웰(Malcolm Gladwell)의 주장이다. 그는 오랜 시간을 투입하면 할수록 좋은 성과가 있으리라는 뿌리 깊은 고정관념을 깨준다. 올바른 판단은 정보와 시간의 양에 비례하지 않는다.

1983년 9월, 장 프랑코 베치나란 유럽의 한 미술상이 美 캘리포니아의 폴게티 박물관을 찾았다. 이른바 '쿠로스 상'으로 알려진 기원전 6세기 대리석상을 소장하고 있으니, 1,000만 달러에 거래를 하자는 것이었다.

박물관 측은 저명한 지질학자 스탠리 마골리스에게 조사를 의뢰했다. 그른 조각상에서 표본을 채취한 뒤 정밀 분석에 들어갔다. 고해상도 입체현미경, 전자현미경, 전자 마이크로 분석기, 질량 분석계, X-레이 회절 등 첨단장치가 총동원됐다. 14개월간의 조사 끝에 내린 결론은 '진품'이었다.

그러나 박물관 큐레이터 아서 휴턴은 못내 찜찜했다. 구매에 앞서 그리스 조각의 세계적 권위자인 토머스 하빙에게 조각상을 보여줬다. 그는 신음하듯 외마디 소리를 내뱉었다. "프레시(fresh)"

새것 같다니? 그것은 2000년도 훨씬 지난 조각상에 결코 어울리는 말이 아니었다. 하빙은 "물건에 처음 눈길이 닿은 순간 '직관적인 반발'(intuitive repulsion)의 파동을 느꼈다"고 말했다. 수년 뒤 이 조각상은 모조품임이 판명된다. 어떻게 해서 하빙은 조각상을 보자마자 불과 2초만에 단 한번의 눈길만으로 가까임을 알아보았을까?

블링크란 찰나에 일어나는 순간적인 판단

블링크('무의식으로 눈을 깜박이다'는 뜻)란 긴급한 상황에서 신속하게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첫 2초 동안 우리의 무의식에서 섬광처럼 일어나는 '순간적인 판단'(snap judgement)을 가리킨다. 순간적인 직관(intuition), 통찰(insight)이라고도 할 수 있고, 심리학자들이 얘기하는 '신속하고 간결한 사고'(fast and frugal thinking)이다. 책의 부재처럼 '생각 않고 생각하는 힘'(The Power of Thinking Without Thinking)을 말한다.

경영 환경이 급격히 변하고 매일매일 결정에 직면하고 있는 CEO들의 경

우 이러한 순간적 판단이 중요하다. 블링크란 바로 긴박한 상황에서 결정해야 할 경우 순간적으로 솟아오르는 약 2초 정도의 짧지만 강력한 생각과 느낌 같은 것이다. 예를 들면, 부대원을 이끌고 정글을 수색하던 도중 갑자기 모두 멈추게 하는 소대장의 태도와 같은 것이다.

잘 학습된 사고는 안정된 상황에서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가변적이고 복합적인 상황에서는 오히려 치명적인 약점이 된다. 생각하기 위해 멈춰서는 순간 상황은 변해버리기 때문이다. 진짜 전문가는 진리를 한 순간에 꿰뚫는 판단력, 즉 통찰력이 있다. 고수의 통찰과 직관력은 어떤 과학이나 정보의 통합보다 더 강력하가. 중요하고 급박한 순간에는 과잉 정보보다 미리 경험과 지식으로 훈련된 순간 판단력이 훨씬 빛을 발한다.

블링크 능력 키우기

그러나 글래드웰은 '첫 2초의 기적'은 운 좋은 소수에게 마술처럼 주어지는 재능이 아니라 모두가 갈고닦을 수 있는 능력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그리고 '순간적인 판단', 즉 '블링크' 능력을 키우기 위한 두 가지 방법을 제안한다.

첫째는 판단에 필요한 정보와 경험을 쌓아 해당 분야에 대한 감각을 키워야 한다. 블링크는 의식의 영역 너머 무의식의 영역에서 순식간에 일어난다. 축구 선수가 수많은 시간을 통해 기본기를 쌓고, 군이 작전 모의 훈련을 하는 것은 우리가 순간적인 판단 능력을 높이고자 하는 행위와 동일하다.

둘째, 판단을 흐리는 편견을 버리고 자신의 순간 판단력을 믿고 마음을 열어야 한다. 우리의 판단과 행동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 이상으로 주위 환경이나 타인의 행동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다. 따라서 블링크 능력을 높이려면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요인들을 찾아 보다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제거해야 한다.

"소수만이 생각한다. 그러나 모두가 결정하려고 한다."

- 프리드리히 대왕(1712~1786) : 프로이센의 왕